

“돌아온 트럼프...광주·전남 수출업체 타격 불가피”

10%P 추가 관세 예고 등 자국 중심주의 무역적자 해소 나설 듯 대미 수출 비중 31% 광주 자동차, 가전제품·전남 석유제품 영향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예상...반도체법·IRA 폐기 등 변화 촉각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지역 수출업체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가 '강한 미국', 자국 중심주의 강화를 모토로 무역적자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만큼 미국이 무역수지 균형 조지에 나서게 되면 수출기업들이 받을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미국이 최대 수출국인데 자동차와 가전제품이 주력 수출품이고, 전남 역시 석유제품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광주·전남 기업들이 상하반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해외 투자 친화적인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고, 한국 제품의 해외시장 내 높은 경쟁력을 고려하면 현재 예측되는 부정적인 영향도 일부 상쇄될 수도 있다.

10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협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대외정책의 미국 중심주의 흐름이 강화되면서 당분간 무역업계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대한 다양한 관세 조치와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무력화를 예고

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포인트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관세, 중국산 제품의 최대 60%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예고한 상태다.

트럼프는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공언했는데, 미 의회 반대로 IRA 폐기가 어려울 경우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한 각종 세제 혜택 축소 시도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미국을 떠난 기업들을 재유지하려는 '온쇼어링'(Onshoring)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해외자본 투자 유치, 수입품에 대한 규제 강화 등도 기정사실화됐다. 이로 인해 지역 수출업체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지난해 광주지역 수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나라는 미국(31%)으로, 수출액은 54.9억 달러를 기록했다.

광주의 대미 수출은 자동차(72.8%), 가전산업(냉장고 13.8%)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향후 무역

환경 변화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의 수출을 견인해온 자동차 수출은 트럼프 정부의 자동차 산업 정책 운용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친환경차 정책이 후퇴한다고 해도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차 등 차종 대응이 가능한 점은 고무적이나 국내 생산 물량의 해외 공장 이전 가능성도 상존한다"며 "광주는 자동차 협력사도 다수 소재하고 있어 향후 완성차 수출 타격시 관련 부품·부품품도 간접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가전 수출도 부침이 예상된다.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가 상승할 경우 미국 소비 수요 둔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남의 경우 미국은 중국과 호주, 일본에 이은 4대 수출국이었던, 수출액은 32.5억 달러(7.1%)로 광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품목별 수출

비중은 석유제품(37.4%), 합성수지(13.2%), 기타화학공업제품(11.7%), 철강관(10.7%) 순이다. 특히 석유산업의 경우 트럼프의 친화석연료 정책은 미국 내 생산 확대에 따른 국제 유가 안정, 한국 제품의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반길만한 흐름이나 제3국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한다.

철강 역시 미국의 중국 경제의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중국발 공급 과잉 심화로 경쟁이 과열될 우려도 있다.

협회는 "수입에 대한 추가 관세, 미국 중심 공급망 확충, 첨단산업 보조금 및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산업 육성 보조금 축소 등 미국 중심주의 강화로 향후 기업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업종 및 기업에 따라 영향은 다를 수 있어 현실적인 특설 고려해 통상환경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HS효성, 벨기에 업체와 손잡고 음극재 사업 뛰어든다

배터리 소재업체 유미코아에 사모사채 방식 448억원 투자

HS효성이 배터리 4대 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 사업에 뛰어든다. HS효성의 계열사인 HS효성첨단소재는 벨기에 배터리 업체와 손잡고 흑연보다 10배 정도 에너지 용량이 큰 실리콘을 사용한 음극재에 투자하기로 했다.

HS효성 산하 HS효성첨단소재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벨기에의 배터리 소재업체 유미코아에 448억원을 사모사채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사모사채는 발행 기업이 특정 투자를 직접 선택해 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HS효성과 유미코아가 협력관계를 맺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HS효성첨단소재가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투자



음극재는 에너지 용량이 흑연 음극재보다 급속 충전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꼽힌다. 포스코그룹, LG화학, SKC, SK머티리얼즈, OCI,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등 거의 모든 배터리 소재 기업이 이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업계에서는 실리콘 음극재 개발 및 생산에 상당한 자금이 드는 만큼 HS효성과 유미코아가 다양

한 형태로 협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터리 소재사업은 조현상(사진) HS효성 부회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다. 조 부회장은 양극재 기업 우전지앤에프의 지분 60%를 327억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HS효성은 이번 투자를 통해 기존 탄소소염에 이어 배터리 4대 소재 중 2개를 품게 된다.

업계에서는 HS효성의 투자 범위와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부회장이 그룹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주문하고 있어서다. 그룹의 주력인 HS효성첨단소재가 올 1-3분기에 173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데다 자금 여력도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을 인수할 것만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2차전지 소재 외에 반도체 소재 등이 M&A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TP,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기업 설명회

13일 나주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재)전남테크노파크(이하 전남 TP)가 에너지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기업을 위해 13일 오후 2시 나주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3층 오픈랩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 공고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9일까지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융복합단지법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에 위치한 기업 중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 기준을 갖춘 기업을 특화기업으로 지정하고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

진 보조금 2%가산, 산업부 R&D 가점 등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요건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 사업장 1개 이상 보유 ▲기업의 총매출액 중 고시에 따른 에너지산업 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남도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특화기업 육성을 위해 2024년까지 모두 62억원을 투자하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GICON '모의IR 피칭데이' 호남권 결선 대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지난 7일 '2024년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의 '모의IR 피칭데이 호남권 결선'을 개최했다. <사진>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은 커뮤니티 지원 등 ICT복합체와 AI융합 교육 등 디지털 신기술 교육 추진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과 인력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광주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 소재 기업, 인재들에게 투자 자금 확보에 앞서 모의IR 피칭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결선에는 호남권(광주·전남·전주·제주) 예선전을 통해 선발된 7개 팀이 참여했고, 발전가능성과 사업성, 시장경쟁력, 비즈니스모델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대상 1팀(주)디딤돌·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1팀(BRIGHT·상금 200만원) ▲우수상 3팀(수행샘, 영길이, 스토아토·상금 각 100만원) 등 5개 팀이 800만원의 상금을 수상했다.

이경주 원장은 "호남권 지역 기업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모의IR 대회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투자시장에 한걸음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광주경총, 고용부 청년성장프로젝트 호남권 통합워크숍

수행기관 관계자 80여명 참석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지난 7-8일 진도에서 광주와 전·남북, 제주 청년성장프로젝트 수행기관 관계자 8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고용청과 광주시가 주최하는 호남권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워크숍은 올해 고용부 신규사업인 청년성장프로젝트 직장적응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광주경총이 타지역과의 사업 연계, 사례 공유 및 내년도 사업추진방향 등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직접 참석해 사업수행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에서 내년도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고용부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지역 청년 구직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맞춤형 청년카페(인프라)를 구축, 구직단념 청년 발굴과 심리상담,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구직단념 예방과 함께 청년일자리지원, 청년도전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같은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청년 고용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조직문화 개선 및 입사 초년생의 장기근속이 목표인 직장적응 지원사업을 진행, CEO와 관리자 대상 리더 혁신, MZ세대 이해, 소통과 공감, 갈등관리 등의 주제로 청년친화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 신입직원 대상으로는 조직문화 교육, 직장예절, 팀협업 및 기본 오피스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업수행 사례 공유를 위해 광주일자리스태이션(상무센터)에서 청년카페 운영 사례,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직장적응 지원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본인토크를 통해 사업

정보교류, 사업수행 애로사항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광주경총에서 광주일자리스태이션 동명센터와 공동주관해 기관 간 네트워킹의 필요성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청년성장프로젝트야말로 고용시장의 문제점인 구인 구직 미스매치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부 정책"이라며 "광주경총이 청년카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 기회를 모색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시 북구 해외시장개척단 1085만 달러 수출 계약

지역 중소기업 10곳 참여

인니·싱가포르 수출상담회

광주시 북구 해외시장개척단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서 1085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10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 해외시장개척단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서 1085만 달러 수출계약을 비롯해 2547만 달러 규모 수출 상담, 대형 온라인몰 입점계약 체결 등의 성과를 거뒀다. <사진> KOTRA 광주전남지원단과의 협력으로 이뤄진 이번 해외시장개척단 일정은 의료기기, 식품, 미용·뷰티 등 생활소비재 제조에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 중소기업 10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유망 바이어 발굴, 시장 조사를 토대로 2개국 현지에서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어 참여 기업 전 제품에 대해 관촬활동을 펼쳤다. 또 싱가포르에서는 세계한인무역협회 싱가포르지회



와 상호 경제 발전 교류 및 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하고 온라인 시장 경쟁력이 있는 4개 기업이 참여한 대형 온라인몰 입점 계약도 진행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우리 지역 중소기업이 보유한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도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외시장 판교가 더욱 다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3월 미국 LA와 샌디에이고 등 미주 시장에서 광융합무역추진단을 통해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한 바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전남도, 중소기업 육성 중기부장관 기관 표창

지역산업 근거 맞춤형 지원 호평

전남도가 중소기업육성부의 제2회 지역혁신대전 기념식에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유공' 포상은 17개 시·도의 중소기업 육성 실적과 계획을 종합해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심의 평가해 시상한다. 중소기업 활성화와 혁신 촉진 등에 기여한 자치단체에 수여하는 것으로, 전남도는 사업추진 실적, 적정성 및 우수사례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남도는 지역 경제, 산업 전반의 현황분석에 근거한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높은 지원 성과를 달성하고, 중소기업의 지역 연구 분야 사업 수요를 발굴해 추진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전남도는 2023년 6개 분야 32개 사업, 총 1864억원의 사업비를 편성, 금융지원·기술사업화 지원·맞춤형 인력양성·수출지원·성장단계별 창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우수사례인 티젠의 콤팩트는 온·오프라인

시장 확대 지원을 통해 매출액 580억원, 고용 110명(5년간 연평균 30% 이상 증가) 달성으로 700만 달러 수출탑 수상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티젠의 글로벌 강소기업 및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등 전남도의 맞춤형 지원사업의 산물로 평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로또복권 (제 1145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2	11	31	33	37	44	32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051,630,084	9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72,657,860	63
3	5개 숫자일치					1,382,079	3,312
4	4개 숫자일치					50,000	164,055
5	3개 숫자일치					5,000	2,647,054